

11월 10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11월 10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2

wrlee@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 증시, G20 호재에 연중 최고..다우 2%↑</p>	<p>뉴욕증시가 9일(현지시간) 연중 최고치로 치솟았음. 주요 20개국(G20)이 경기회복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경기부양책을 지속하기로 약속한 점이 호재로 작용. 특히 G20의 결정으로 `위험자산` 신호도가 상승한 반면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 가치는 15개월래 최저치로 밀렸고, 이 영향으로 금값과 구리값, 국제유가가 일제히 반등하면서 원자재 상품주가 랠리를 전개했음. 다우 지수는 203포인트(2.03%) 상승한 1만226.94를, 나스닥 지수는 41.62포인트(1.97%) 오른 2154.06을, S&P 500 지수는 23.78포인트(2.22%) 상승한 1093.08을 각각 기록. 지난주말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이 재정지출 및 저금리 등 경기부양 조치를 지속하기로 결정한 점이 투자심리를 북돋웠음. 주식시장에서는 원자재 상품주는 물론이고 환율수혜 기대감으로 다국적기업들까지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음.</p>
<p>미 달러화 약세..상품주·다국적기업 동반 강세</p>	<p>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금값과 금속가격, 국제유가 등 원자재 상품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음. 근래 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지난주말 G20 재무장관 모임에서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점이 달러화 약세를 더욱 부추겼음.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영향으로 뉴몬트 마이닝 등 금광주가 강세를 나타냈고, 다우 종목이자 알루미늄업체인 알코아와 구리생산업체인 프리포트 맥모란 등 금속관련 상품주가 일제히 상승했음. 또 달러약세와 허리케인 아이다(Ida)의 멕시코만 진입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에너지주 전반도 오름세를 나타냈음. 이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2월물 인도분 가격이 2.6% 급등하며 79.43달러까지 상승. 달러화 약세는 다국적기업들에게도 호재로 작용했음. 다우 종목인 제너럴 일렉트릭(GE)와 캐터필라 등은 달러화 약세가 실적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며 다우 지수 상승을 지지했음.</p>
<p>G20 `부양책 지속` 합의 호재</p>	<p>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주말 스코틀랜드에서 모임을 갖고 세계경제와 금융시스템의 회복이 확실해질 때까지 지원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음. G20은 위기 대응 공조에 힘입어 경제금융여건이 개선됐지만, 세계경제 회복이 고르지 않고, 여전히 정책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높은 실업이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음. G20의 이번 결정에 따라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부양책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완화를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저금리 기조를 지속할 예정. `출구전략(부양정책을 거둬들이는 조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도 크게 희석, 뉴욕증시는 호재로 받아들였음.</p>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급등..허리케인 + 달러약세	국제유가가 9일(현지시간) 급등세를 보이며 배럴당 79달러선에 올라섰음. 미 달러화 약세속에 허리케인 `아이다`가 멕시코만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재료로 작용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2월물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2달러(2.6%) 상승한 79.43달러로 거래를 마쳤음. 유가는 장중 80.28달러까지 상승한 후 상승폭을 조금 줄였음. 미국 달러화가 주요국 통화에 대해 장중 15개월래 최저치로 밀림에 따라 달러화 및 인플레이에 대한 헤지수요로 원유 매수세가 강화됐음. 여기에다 시속 130Km의 1급 허리케인인 아이다(Ida)가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지나 미국 남부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도 원유시장에서는 재료로 작용했음.
적대적 M&A `폼짜마`..`포이즌필` 정부안 윤곽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회사 정관에 규정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포이즌필(poison pill) 발동이 가능해짐.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인수선택권은 무상으로 발행되며, 행사가액은 액면가보다 낮아도 됨. 다만 신주인수선택권과 주식은 분리할 수 없음.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을 발표. 포이즌필이란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경우 인수자 이외의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임. 2006년말 현재 미국 S&P500대 기업중 정관에 명시적으로 포이즌필을 도입한 기업은 48% 수준이며, 일본은 지난 8월 현재 약 4000개 상장사중 569개사가 포이즌필을 도입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 3분의 2이상, 발행주식총수 3분의 1이상 찬성)를 통해 포이즌필 도입을 정관에 규정할 수 있으며, 이후 적대적 M&A 상황에 놓일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또 경영권 양도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이외에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했음. 신주인수선택권은 무상으로 부여하며, 행사가가 액면가보다 낮아도 됨. 이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주주들이 인수선택권 행사를 포기할 경우 경영권 방어를 달성할 수 없어 액면미달 발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본액 상당의 순자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자본유지 원칙의 예외사항. 신주인수선택권은 주식과 분리해 양도할 수 없게끔 했음. 이는 공격자가 낮은 가격에 대량 매집해 되레 공격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아울러 회사는 적대적 M&A 방어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신주인수선택권 행사기간 개시 전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무상으로 신주인수선택권 전부를 소각할 수 있음. 법무부는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주를 차별취급하도록 할 방침이며, 공격자나 이해관계인은 유지청구권, 신주발행무효 소송 및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차별 취급이 적법한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